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8월 28일 (제116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신앙의 4단계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 처음은 결단이요, 다음은 순종과 침노, 그리고 인내다. 아브라함은 결단의 상징이요, 대명사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살던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일이 그랬고, 하나님이 명하자 사랑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일도 그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일도 그랬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다. 어느 누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울 길을 걸을 때는 자신이 제물이 될 줄 몰랐지만,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는 눈치챘다. 그때 늙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도망할 수 있었으나 순순히 순종했다. 또한 아내를 얻는 일에도 아버지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야곱은 침노의 대명사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약탈자요 사기꾼이다. 그러나 천국은 야곱처럼 침노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침노를 감행했다. 순리인지라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에 힘입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하며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다. 분노한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압복강 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쟁취한다. 요셉은 인내의 대명사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자신과 싸우면 인내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목회 38년 동안 나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와 형제, 처자, 친구, 그리고 나를 안수한 교단을 뒤로 하는 결단을 했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또 이삭처럼 순종했다. 300억 현찰로 교회를 지으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여 올림피아공원으로 들어갔고, 물설고 낯선 이국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또한 나는 야곱처럼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조건에서 늘 침노했고, 요셉 못지않은 인내로 오늘에 이르렀다. 음악에도 8음계를 잘 타야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듯 신앙의 4단계를 밟을 때 신앙은 성숙하고 완성된다.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할 수 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의 모습 또한 어제까지 우리 교단이 목사님과 함께 달려온 지난한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한 법칙이며,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마16:27).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를 안수한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달려왔습니다. 올림피아공원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300억의 현찰을 들고 와 교회를 건축하지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물설고 낮 설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지구 반대편도 마다치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죽을 고비도 슬하게 넘었지요. 자동차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총기로 위협을

와 강선이를 생각하며 오전과 저녁집회를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 집회를 모두 마치고 오치환 장로의 아들 명철이가 찾아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대학 편입을 준비시키려 했는데, 본인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뇌와 번민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릇된 과정을 방지하듯 지내놓고는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

봉우 이초석 목사

성공한 자들은 목표만 보고 귀는 막았다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은 당연히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각자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공력을 시험하시고 공정한 심판으로 평가하실 것이다(고전3:13~15).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결과 또한 우리 삶의 과정을 대변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 설교에서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간증임’을 설명하셨다. “나는 38년 전, 단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와 노력이란 두 친구를 늘 곁에 두고 불철주야 주님의 뜻에 따라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나

당하고, 가스를 마셔 인사불성이 되고, 또한 KGB에 끌려가 조사를 받지 않나, 종교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지 않나, 정말 38년을 되돌아보면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넘어온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바로 이러한 과정의 산물입니다. 곧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모든 일들은 피와 땀과 눈물의 과정을 대변해줍니다. 과정 없이 어찌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번 청소년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 집회만 보아도 나는 거의 두 달을 기도원에 상주하며 기도원 식구들, 특공대 주의 종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독려하며 더위와 싸우고, 각종 사고와도 싸우며 지난한 과정을 넘고 넘었기에 아름다운 작품을, 기쁨의 결과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기쁜 것은 오치환 장로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어찌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장미꽃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내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도 잘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원인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부어놓고 내가 잘되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침 뽕은 우물 3년 안 돼 도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말3:10~12)

너는 듣고 깨닫고 실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그러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조건이요, 요구사항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도 조건이 맞아야 주듯, 대학에 입학서류를 갖춰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제조건을 주시고 그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전제조건을 제약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청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답니다. ‘더러우면 안 만나준다.’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나오지만, ‘아! 깨끗하게 살라는,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는 거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잘못된 자, 실수한 자를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해줘라. 이해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당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십일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하면’ 보다 강한 표현으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십일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확약입니다. 이런 보장된 약속이 있음에도 십일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어릴 때 제가 초콜릿을 사주고 ‘할아버지 아~’ 하면 냉큼 하나 제 입에 넣어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아까워서 뒤로 숨기는 놈이 있습니다. 제가 사줬는데 말입니다. 어느 놈이 예쁠까요? 하나님도 열 개 주고 하나 ‘아~’ 하시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주시려고, ‘요즘이 날 사랑하나? 내가 준 걸 아나?’ 보려고 그

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말3:11~12).

국가에 세금 내시죠? 내가 일해서 얻은 소득인데도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0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은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막12: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요.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는 율법의 산물이나 복음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23:23). 이는 “십일조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십일조와 함께 네 삶에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일조를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일조의 기원을 볼까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서부터입니다. 즉 모세 율법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폭군이 소돔 고모라 왕과 일전을 벌였는데, 소돔 고모라 왕의 참패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재산이 다 탈취당했고,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처자

와 함께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해서 야음을 틈타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렘왕 벨기세텍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7장에 벨기세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벨기세텍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가 얻은 것

중에 십일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벨기세텍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벨기세텍은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

주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십일조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저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유숙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에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벧엘’이라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28:20~22).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금의환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3:7~8)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세금을 안 내도 범법자인데, 하나님 것을 빼먹으면 당연히 도둑놈이지요.

제 목회 초창기인 1991년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갑자기 소가 나타나더니 저에게 “도둑놈!”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놀란 제가 “누가?” 하고 물었더니, 소가 “네가!” 그러는 겁니다. 이상을 본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있나 없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파한 후 귀빈실에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더러는 예물을 들고 오기도 하고, 더러는 개인적인 용돈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김종일 장로가 그것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서 제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을 그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돕는 것도 주의 일인지라 십일조를 떼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깨닫고, 지교회 모든 목사들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십일조를 명령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교단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었고, 큰 전대를 차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첫 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9~10).

현대판 선악과는
바로 십일조다

하나님은 6천 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2천 년이 되도록 하신 말씀을 하시고 되하십니다. 제게도 38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첫 열매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영·혼·육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라. 할렐루야!

:: 객원칼럼 ::

손절매의 중요성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의 저자 로브는 그가 배운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로 주저 없이 손절매를 성공투자의 첫 번째 열쇠로 꼽았습니다.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확실한 한 가지 투자장치인데 손절매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실행하기 싫어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일부는 투자수익을 내고 있고, 일부는 현 주가와 비슷하고, 일부는 손실을 보는데 아주 큰 손실을 내고 있는 문제의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개 자신의 손실이 단지 장부상의 손실(미실현 손실)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투자계좌가 거둔 투자수익은, 반드시 지금까지 얻은 배당금 수입과 시세차익에서 투자손실을 차감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반드시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가 지나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만 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 수익성 좋은 종목을 고를 기회는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로브는 보유종목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새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매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 종목을 나중에

다시 매수할 수도 있으나 그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앞서 손절매했을 때에 비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10%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가령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반토막 났거나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할 경우 일단 일부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매도한 뒤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머지 보유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유주식의 절반을 매도했다면 이번에 또 절반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자금을 더 좋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브는 투자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손절매와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권합니다. 어느 종목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10% 하락했다면 일부라도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 종목 단위로도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주가 움직임이 가장 부진한 종목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경제 원리인 십일조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는 투명성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고 손익계산서를 계산해야만 이익이 얼마 난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 본 거는 버리고 있는 거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제원리라고 가르쳐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투자에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얼굴을 뒤덮기 시작했던 여드름은 청소년기 시절 저의 최대 고민거리였습니다. 울긋불긋, 울퉁불퉁했던 얼굴이 창피해서 되도록 고개를 꼭 숙이고 다니기 일쑤였지요.

타고난 피부 미인인 엄마를 닮지 않고 젊을 시절에 여드름쟁이였던 아빠를 닮아 내가 이렇게 된 거라며 억울함에 땀똥 같은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자답게 생긴 아버지의 얼굴형까지 닮았던 저를 보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진실이 계란 흘랑 벗겨진 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손으로 제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된 건 스무 살이 된 이후였습니다.

“성형하지 않고서야 가능하겠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여드름에, 여전히 넉넉데한 제 얼굴을 보며 저도 자포자기했으니깐요.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실이지만 제 나이 21살에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겠다고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와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는 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31:30)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음 날 예약을 취소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각이 납니다. “너는 안돼도 나는 돼!” 20년 전에도 동일하게 외치셨던 목사님은 믿음이 연약한 저를 보실 때마다 ‘계란 흘랑’을 주입시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멀리서 봐도 이마에서 광이 나요.” “여드름이 있었다구요? 안 믿기는데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38년을 외쳐오신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으로 저는 정말 ‘계란 흘랑’ 벗겨진 것처럼 환골탈태하여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전’이라는 보편적 지식의 틀에 갇혀 평생 여드름 많은 넉넉데한 얼굴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현실의 제 얼굴을 받아드리지 않으시고 십수 년간 멋진 얼굴이 될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셨기에, 오늘날 제가 기적을 맞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처럼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김진실 사모

:: 겨자씨만한 믿음 ::

감사함으로, 고난으로 받는 복

칭기즈칸은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벽돌집에 사는 것’은 정착한다는 의미이고, 곧 말타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허벅지에 살이 찌고, 배부른 기를 맛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원정길을 포기하고 음주가무에 빠져들 것을 경계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성경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신 8:12~14)고 말씀하신다.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 사람이 성공하거나 잘살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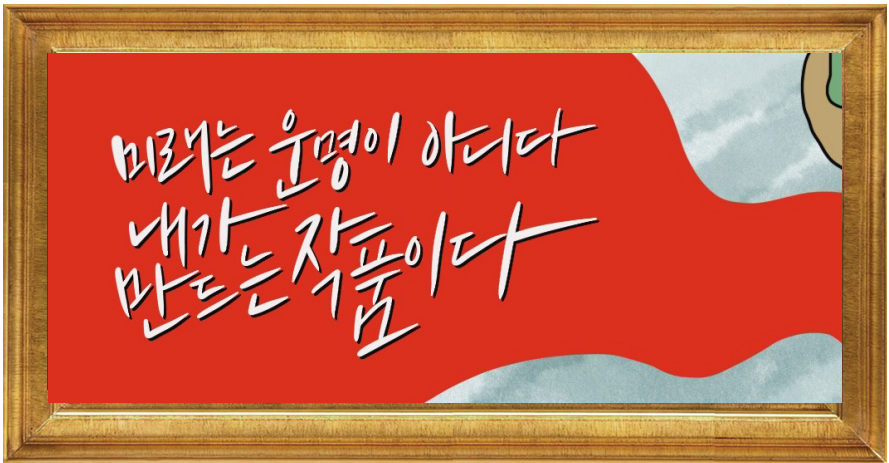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은 세상

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부유하고 슬기로운 왕이었다. 하지만 그도 말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물질과 군사를 과시하며 향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결국은 아들 대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신8:19)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낮추고 시험하시지만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8:16).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김성일 집사



:: 낮은 울타리 ::

최후의 사람

‘최초로 전기를 상용화한 인물’ 발명왕 에디슨, ‘최초로 중력의 개념을 확립한 인물’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도 ‘최초’라는 사실을 홍보합니다. ‘최초’라는 말에는 혁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연하게 항상 ‘가장 먼저’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남들보다 빨리 하면 그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먼저 하고 싶고,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좋아했고, 하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따랐는지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고 다윗에게로 시선을 옮겨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작만 볼 때 사울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비

참했지요.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을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죽는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시작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최초’라는 타이틀에 주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최후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빠르다고,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절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이웃을 섬길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 모두 끝까지 첫 마음 가지고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승리하는 ‘최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장수정

:: 간증 ::

::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릴 적 동네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던 저는 30여 년 전 이초석 목사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책 속의 모든 일들이 그저 그때 그 시절에 있던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나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너희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며 어떤 때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포기할 때 아버지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를 들어 교육공무원이 되게도 하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성가대를 통해 죽도록 충성할 때 아버지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정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2월, 건강검진 시기가 되어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건강검진 항목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전립선 수치 검사를 추가로 해보라고 해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워낙 건강했던 저는 검진 결과에 큰 신경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녀 달 후 4월쯤 되어서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들렸는데, 담당 의사가 PSA 수치가 높다고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나의 마음 속에는 '설마 아버지가 나한테 암 같은 병을 주시겠어? 아닐 거야! 내가 한 일은 지금까지 오직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애써 왔는데 좋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리가 없어!'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암중에서도 가장 악성 암으로 전이 속도가 가장 빠른 암이라며 시간을 다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1차 건강검진 시 나온 수치 결과가 벌써 4개월이 지났으니 그동안 전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을 소개해주며 바로 수

술 날짜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대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대장 유착이 심해 기계가 들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수술 날짜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소리 질러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제 아내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도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생생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느꼈던 성령! 성령! 성령!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래, 성령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안에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육체는 어찌할 수 없어도 내 영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 춘계산상집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는 '네가 성령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다. 어떠한 악한 것들이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너를 지키리라'는 확신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병원과 의사를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아버지께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질병을 막아달라고 성령님께 오로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기이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괴이한 짐승의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1시30분경). 그 소리는 1층 정도에서 들리는 소리로 정말 형용할 수 없이 괴이한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들으니 어딘가에 갇혀서 올라오지 못하고 포효하는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포효하는 짐승의 소리에 나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방문을 열고 '예수! 예수!' 이름을 되뇌며 현관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2층이나 3층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들어오지는 못하고 전과 같은 소리로 악을 쓰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여는 순간 그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충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가 직접 알게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잡으려 들어오려 했지만 성령 아버지께서 막아 주심을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의사와 병원의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우리 부부는 오직 기도로 성령충만을 구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살길이라고 믿었니까요. 성령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이 없이 바로 수술하게 되었다면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역시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념으로 보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빨리 수술하게 하든지, 아니면 수술도 안 하고 없애버리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영이 충만함을 느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이니까요!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의 영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장유착으로 인해 수술이 어렵다는 것도 해결하였고, 암세포를 꼼꼼히 묶어서 한쪽에 몰아두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두셔서 깨끗이 잘라내고 건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병중에 계십니까! 성령충만을 찾으십시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들을 찾을 때, 나의 영이 아버지의 영으로 차고 넘칠 때,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쓸어 버려질 것입니다. 저는 암이라는 것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 덕분에' 나는 가장 귀한 성령충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 외엔 정복자 없게 하옵소서!

대전예수중심교회 최명철 장로

준비하는 자

우리나라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 폭우로 서울은 물론 전국이 물바다가 되었다. SNS나 뉴스를 통해 본 상황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였지만 분명 피해를 줄일 다양한 대비책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5~6월이 장마철이니 폭우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갔어야 한다. 첫째, 침수방지시설 점검하기. 둘째, 배수로시설 점검하기. 셋째, 폭우 시 위험한 지역 접근하지 않기. 넷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예상 시 신속히 대피하기. 대표적인 예로 강남역 다량의 침수 구간은 배수로에 쓰레기와 담배꽂초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청소년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를 5주 전부터 준비하시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셨다. 기도원 숙소 리모델링, 야외식당 증축 공사, 카페 신축, 기도원 뒷산 별목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련회와 집회를 준비하셨다. 벽돌 한 장 한 장과 음식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고 점검하시며 예수중심교단의 청소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영성 회복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신 것이다. 목사님과 기도원 식구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수련회와 산상집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목사님의 이런 유비무환 정신을 본받아 필자가 소속된 서울 청년부 교육관에서는 미리 이번 폭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수 공사를 마쳤다. 그러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닥친 영등포 문래지역의 건물 지하임에도 완벽하게 재해를 막을 수 있었고, 보송보송한 교육관이 완성되었다. 기도원 집회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준비하신 목사님처럼, 우리 매사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여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송현혜 생도

